본당 모임 및 교육

본당 사목 단체 월례회		레지오 마리애 주회		본당 제단체 모임		구역 연락처(13구역)	
사목회의	(마지막, 일)3시 미사후	순교자들의모후	(화) 4:15 PM	성령기도회	(목) 미사후	총구역장	214-597-5553
재정회의	(셋째 화) 미사후	사랑의 샘	(화) 6:00 PM	울뜨레야	(둘째 일)	알랜,맥키니	972-206-7009
전례회의	(마지막, 화) 미사후	심자가의 모후	(화) 6:00 PM	꾸리아	(셋째 일)1:00 PM	캐롤톤	213-344-9129
구역장회의	(첫째 토) 3 PM	천사들의 모후	(일) 11:30 AM	쎌기도	(2,3주일)10시미사후	코펠	469-231-2002
성찬봉사회	(둘째 목) 미사후	신자들의 모후	(화) 5:30 PM	청년회	(토) 6 PM	N. 코펠	972-743-9323
성모회	(첫째 화) 미사후	평화의 모후	(토) 3:30 PM	교사회	(일) 9:15 AM	던컨빌	469-328-3831
학부모회	(셋째 일) 1 PM	자비의 모후	(토) 3:00 PM	콜롬버스기사회	(넷째 일) 1:30 PM	갈랜드	972-795-9706
대건회,7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황금궁전	(일) 11:30 AM	청소년 복사단	(첫째 일) 1:30 PM	얼빙	214-681-4225
하상회,6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사도들의 모후	(일) 11:30 AM	복사단 자모회	(첫째 일) 1:30 PM	E. 프리스코	972-400-2882
이냐시오회,50대	(셋째 일) 10시 미사후	구세주의 모후	(일) 11:30 AM	연령회	(둘째 목) 미사후	E. 프리스코	214-436-3648
사도회,40대	(넷째 일) 10시 미사후	하늘의 모후	(일) 11:30 AM	도서실운영회	(둘째 일) 2 PM	W.프리스코	469-831-6531
토마스회,30대	(셋째 토) 4 PM	로사리오의 모후	(일) 11:30 AM	이냐시오CLC	(월,수,목) 8 PM	E. 플래노	214-316-0701
		승리의 모후	(토) 3:30 PM	거룩한 독서	(화) 10 AM, Zoom	W. 플래노	818-590-3442
주일학교&청소년	(일)10:00 AM-11:15 AM	즐거움의 샘(Jr.)	(일) 9:00 AM	성경100주간	(수) 8 PM, Zoom	리차드슨	214-770-4047
한국학교	(토) 9:30 AM-12:30 PM			성경100주간	(금) 8 PM Zoom	밸리랜치	214-470-8747
				재속복자회	(셋째 일) 4 PM		

교우 업체 소개

살롱 드 아르떼
미용실 (시온마켓 2층)
972-704-5639
앤디(베드로), 유리(카타리나)
현하(엘리사벳)

노바 덴탈 Las Colinas
Tel (214) 461-0425
1111 Kinwest Pkwy #150
Irving, TX 75063
김하운 소피아 DDS

남마리아 부동산
사업체/주택/상가리스
남현주 마리아
(972) 357-5535
Realtor.marynam@gmail.com

성악 레슨
Vocal Music Lesson
조미경 루치아
(469) 920-9735

NCCDP National Council of Certificated Dementia Practitioners
'도란도란' 토요돌봄센터
Memory Focused Day Care
(972) 506-0177 (자원 봉사자모집)
은혜복지센터/KAS협력
www.gracedahs.org

EAST WEST BANK
Steve Hong
SBA 융자담당 (949) 697-4859
steve.Hong@eastwestbank.com
5001 Spring Valley Rd. ste 400
Dallas TX 75244

O K 에어콘
대표 이정기
설치 및 수리 (주택/ 상업용)
214-796-3377, 469-774-3377
zzokac@gmail.com

E & K Electric
전기의 모든 것
한정관 요셉
Tel 972-955-6156

조앤박부동산
주택전문, 세집전문
박성아 소화데레사
(214) 770-6496
Realtorjoanne73@gmail.com

Greenhill Insurance
Business I Auto I Home I Medicare
(972) 243-3598
11498 Luna Road Ste 101
Dallas, TX 75234

스턴스 건축
지붕공사, 팬스, 타일공사
리모델링, 카운터 탑
리아 (469) 878-7158

Naya Park Realtor
Commercial/Residential
달라스 부동산
박나야 아녜스
972. 514. 2213

쉐넌 정 부동산
Section8 (주거 바우처 프로그램)
& 투자 전문
리스 시세보다 20%이상 수익률
& 커머셜
817-682-3078
SJrealty247@gmail.com

MDMartin
스태핑 . 인력 관리
MARK LEE 시설 유지 관리
Tel 214-991-5026
mark@mdmartinstaffing.com
www.mdmartinstaffing.com

Shine Learning Center
JUNE KIM
미술 I 영어 I 수학 I 테스트 준비 I 스템
Carrollton Campus
972-245-7914

Sprout Dentistry For Kids
BRUSH / FLOSS / SMILE
(469) 663-0098
939 W. Stacy Rd. Ste 140
Allen, TX 75013

북나라 Book Nara
캐롤톤 H마트 몰
7 days open
(972) 245-2665
이전 장소
"동천홍과 맛객 사이 복도 끝"

First Lending
주택 Mortgage 전문
상담 · 문의 환영
김종민 베드로 (972)469-2735
Johnkim@first-lending.com
MLNS#2133163

맑음 헤어 살롱
Hair Salon
Tel 972-693-6247
코마트 옆
일요일은 예약 받습니다.

표정원 율지
집 융자 전문은행
NMLS ID#1522416
Conie.pyo@mtgmac.com
표정원 루시아
(770) 318-4542

달라스 성 김대건 안드레아 성당
ST. ANDREW KIM CATHOLIC CHURCH

대건주보

2025년 6월 29일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교황 주일) 제 259973호

오늘의 전례

[입당송]
이 사도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 자신의 피로 교회를 세웠으며,
주님의 잔을 마시고 하느님의 벗이 되었네.

[제 1 독서] 사도행전 12,1-11

[화답송] 시편 34(33),2-3.4-5.6-7.8-9(◎ 5ㄴ 참조)
◎ 주님은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나 언제나 주님을 찬미하리니, 내 입에 늘 찬양이 있으리라.
내 영혼 주님을 자랑하리니, 가난한 이는 듣고 기뻐하여라. ◎
○ 나와 함께 주님을 칭송하여라. 우리 모두 그 이름 높이 기리자.
주님을 찾았더니 응답하시고, 온갖 두려움에서 나를 구하셨네. ◎
○ 주님을 바라보아라. 기쁨이 넘치고, 너희 얼굴에는 부끄러움이 없으리라.
가련한 이 부르짖자 주님이 들으시어, 그 모든 곤경에서 구원해 주셨네. ◎
○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그 둘레에, 그분의 천사가 진을 치고 구출해 주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 ◎

[제 2 독서] 티모테오 2서 4,6-8.17-18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저승의 세력도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 16,13-19

[영성체송]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르셨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성가	시작	봉헌	성체	파견
	55	219, 220	170, 171	291

미사안내

주일	토요일	5:00 PM 한국어
	일요일	10:00 AM 한국어
		12:00 PM 영 어
		3:00 PM 한국어
평일	화 · 목	7:30 PM 한국어
	수 · 금	10:00 AM 한국어

성사안내

고해성사	매 미사 30분 전
유아세례	2,5,8,11월 첫째 토요일
혼인성사	사무실에 6개월 전에 신청
성 시 간	매월 첫째 목요일 미사 후

성당정보

주임신부	조재형 가브리엘
부주임신부	윤충훈 세례자요한
수 녀	이체칠리아,한베로니카 214-762-5794
사 무 실	972-620-9150
종신부제	이시훈 사도요한 214-668-2862
사목회장	서윤교 요셉
팩 스	972-484-4628
주 소	2111 Camino Lago Irving TX 75039

예비자교리		일 11:00AM - 12:15 PM
성경 공부반		수 7:00 PM (남성반) 이 요한 부제
		수 11:00 AM 이 체칠리아 수녀
		수 11:00 AM 박 비비안나
사무실 업무시간		일 9:00 AM - 5:30 PM
		월 휴무
		화 · 목 12:30 PM - 8:30 PM
		수 · 금 9:30 AM - 6:00 PM
		토 10:00 AM - 6:30 PM

강 론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교황 주일)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이며 동시에 교황 주일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놓은 두 기둥,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를 기리며, 우리가 모두 다시금 신앙의 뿌리를 되새기는 날입니다. 성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신앙 고백의 본보기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 고백 위에 하느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성 바오로는 그 신앙 고백이 담고 있는 내용과 의미를 삶과 글과 순교로 증거한 사도입니다.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라는 말씀처럼, 그는 복음을 위해 한평생을 불태우며 살았습니다. 두 사도는 다르지만, 서로를 필요로 했고, 서로를 통해 교회가 온전히 세워졌습니다.

1982년, 제가 신학교에 입학했을 때를 떠올립니다. 동기 중에 이름이 베드로와 바오로였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제게 성인들의 삶을 떠오르게 할 만큼 깊은 인상을 남긴 사제들입니다. 오늘은 신앙을 고백했던 베드로 동창과 신앙의 내용을 깨우쳐 준 바오로 동창 사제의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베드로 신부님은 다들 가기 힘들어하는 '군종 사제'를 자원했습니다. 3년간 이미 군 생활을 마쳤는데, 다시 4년을 군에서 지내야 하는 소임이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은 군종 사제를 마친 후에 이번에는 '도시 빈민 사목'을 선택했습니다. 금호동, 삼양동, 봉천동, 장위동에서 신부님은 도시 빈민 사목을 했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본당 사제로 사목하고 있을 때입니다. 신부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려운 현장에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예수님께서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신부님은 2년 전, 제가 있던 뉴욕에 잠시 들렀습니다. 여전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베드로 사도 같았습니다.

바오로 신부님은 학문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신학생 중에 제일 먼저 컴퓨터를 사용하였습니다. 저의 논문도 컴퓨터로 작업해 주었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라고 하지만 술과 담배를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에서 공부하였고, 뉴욕에서도 공부했습니다. 사제 양성 위원회의 총무를 맡아서 한국 천주교회 신학생 양성 지침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뉴욕 평화신문에서 있을 때입니다. 당시는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신부님은 가톨릭의 영성을 역사적인 흐름에 따라서 연재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신학교 학장으로 후배 양성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바오로 사도는 "나는 훌륭히 싸웠고 달릴 길을 다 달렸으며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는 의로움의 화관이 나를 위하여 마련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심판관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앞으로도 나를 모든 악행에서 구출하시고, 하늘에 있는 당신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신부님의 모습에서 달릴 길을 충실하게 달렸던 바오로 사도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본당에 있을 때 교우분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곤 했습니다. '신부님은 자상하신데, 다른 신부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나요?' 저는 자상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사목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어르신들께서 좋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베드로 사도처럼 열정은 있지만 추진력이 부족합니다. 바오로 사도처럼 주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바리사이파처럼 주님을 따르기도 하였습니다. 하느님 앞에는 너무 빠른 것도, 너무 느린 것도 없습니다. 천년도 하느님 앞에는 지나간 어제 같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 앞에는 완벽한 것도, 똑똑한 것도, 재능이 있는 것도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느님께서는 길가의 돌 하나로도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베드로 사도가 흘렸던 참회의 눈물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오로 사도가 보여주었던 새로운 삶으로의 회개입니다.

오늘은 교황 주일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인 교황님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황님은 분열된 세상 속에서 일치의 중심, 그리고 신앙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보여주었던 가난한 이들과의 연대, 생태 환경에 관한 관심, 평화를 위한 중재는 바로 오늘날의 베드로요, 바오로의 사명입니다. 레오 14세 교황님께서 착한 목자로 가톨릭교회를 잘 이끌어 가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성 베드로처럼 "주님은 살아 계신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 바오로처럼 그 고백의 내용을 삶으로 풀어내며, 믿음의 길을 끝까지 달려가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그분께 몸을 숨기는 사람!"이다.

조재형 가브리엘 신부님

공 지 사 항

2025년 사목 목표

1. 사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신앙생활
2. 다양한 교육 및 활동 참여
3. 순교 정신으로 사회봉사
4. 미사와 기도의 중요성 강조
5. 본당 설립 50주년 준비 위원회 발족

- 2차 헌금
  교황님의 사목을 위한 교구의 2차 헌금이 6/28 (토), 6/29 (일)에 있습니다.

- 한주혜 베로니카 수녀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총원(서울)에서 휴양하게 되어, 후임으로 김민혜 연희마리아 수녀님이 부임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 성시간
  일시 : 7/3 (목) 미사 후

- 7월 성소 후원회 모임
  일시 : 7/3 (목) 오후 7시 묵주기도로 시작
  7:30 미사와 성시간

- 25년도 북미주 한인 수녀 피정 및 총회 참석차 7/7~7/18일까지 수녀님께서 자리를 비우십니다.

- 2025년 미 중남부 성령 세미나
  주제 : " 예루살렘아, 일어나 비추어라."
  (이사야 60,1)
  일시 : 9/1~9/3 출퇴근
  초청 강사 : 김현우 바오로 신부 (인천교구)
  참가비 : $180 (신청 : 사무실)
  주최 : 본당 성령기도회
  후원 : 중남부 성령쇄신 봉사회
  문의 : 이수미 한나 469-231-2002

- 경제 교실
  급변하는 세계 경제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잘 적응할 수 있는 지혜를 각 전문 분야에서 활동 중인 교우분들의 강의를 통해 나누고자 합니다.
  일정 : 7/12 ~9/27 (12주간)
  시간 : 매 주 토요일, 오후 3:30~4:30
  장소 : 교리실 (C 117)
  제 1강 : 지구 환경과 에너지의 미래
  (강사 임진명 요셉, 현 ACT-ion B.T CEO)
  문의 : 최영석 가브리엘 443-944-4041

- 2026년 달력 광고 신청
  내년 2026년 본당 달력에 업체 광고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시시 바랍니다.
  광고비 : 350불
  선착순 마감 (현재 6자리)

- 7월 한 달은 점심 봉사가 없으며, 8월부터 다시 재개됩니다.

점심 봉사	'가족의 날'

윤충훈 세례자요한 신부님 축일





치유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임원옥(크리스티나), 엄찬길(찰스), 강경순(요안나), 마하해(스텔라), 윤지희(미카엘라), 전용환(요한), 김정자(뮤리엘), 김성희(글로리아), 이예린(세실리아), 하정희(율리아), 이상원(스테파노), 기길자(루치아), 김외분(프란체스카), 정상옥(젬마), 손현윤(가브리엘), 손현식(미카엘), 양영도(이냐시오), 김연우 제이든(요셉), 안길승(가브리엘), 한재민(야고보), 진 도미닉 프란치스코, 이복순 (카타리나), 오군석(프란치스코), 남상돈 (테오토르), 서지연 (로사), 김용진 (안드레아)

건축헌금		교무금					
Joseph Danny Traylor Jr. (4)		김순덕, 이용수, 정용웅, 윤종건, 백기선, 선봉성, 정성문, 김용환, 윤형석, 조필호, 정행삼, 이영기, 임종후, 이재호, 전피터, 김정훈, 제이슨 리, 이길현, 양낭숙, 강옥임, 백혜란, 이원숙, 노정식, 차형례(6) - 여러분의 정성에 감사드립니다. -					
건축 계정	$96,726.73	건축	$4.00	교무금	$4,030.00	주일 헌금	$5,647.00
일반 계정	$304,838.93	특별 헌금	$460.00			주일 총액	$10,141.00
지난주 평일 미사 참석자 수		화 30명	수 33명	목 23명	금 32명		
주일 미사 참석자 수		토 70명	10시 341명	12시 175명	3시 63명	**주일 합계**	649명